

存齋 魏伯珪의 현실인식과 시적 형상화*

박명희**

<차례>

1. 머리말
2. 농촌 현실에 대한 인식
3. 시적 형상화의 양상
 - 1) 궁핍한 삶의 觀照的 표현
 - 2) 빈궁한 현실의 迂廻的 表출
 - 3) 농경 현장의 寫實的 묘사
4. 시적 리얼리즘의 실현과 의미
5. 맺음말

1. 머리말

存齋 魏伯珪(1727~1798)는 조선후기 호남의 대표 실학자로서 중앙과 멀리 떨어진 僻村 長興의 在地 士族으로 일생을 보냈다. 그러나 비록 벽촌에서 일생을 보냈다고는 하나 위백규의 현실을 보는 예리하고 날카로운 안목과 현실을 구제하는 대안은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났는데, 그러한 내용은 저서 『政絃新譜』(33세), 『封事』(50세), 『萬言封事』(70세) 등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따라서 그동안 각 분야에서 이루어진 위백규의 연구도 이러

* 이 논문은 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 2004-050-A00021).

** 전북대학교

한 면에 초점을 맞추어 그의 실학적 면모를 들추어내려고 하였다.

시조 <農歌>로부터 시작된 위백규의 문학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 초에 이르러서야 본격화되었다. 특히, 그동안에 이루어진 연구를 외적으로 넓혀 한문학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는데, 이로서 위백규 문학의 실체를 조금은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¹⁾ 그러나 400여 수에 이르는 한시 작품과 그 무수한 한문 자료가 아직도 완전 해독이 되지 않은 상태인지라 그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기란 遙遠하다고 생각한다.

본 논고는 우선 위백규의 한시문 중에서 현실인식이 바탕이 된 작품을 분석해 보고, 이러한 작품들이 과연 어느 정도 시적 리얼리즘을 실천했는가? 하는 측면을 연구하였다. 여기에는 위백규 시문의 중심은 ‘현실시’라는 막연함이 은연중에 있다. 즉, 위백규는 30대 초반에 벌써 시폐를 논의할 정도로 대사회적인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쓴 시문도 거의 동체를 그리며 창작되었다. 따라서 이를 무수한 문인들과 대별되는 위백규 자신만의 시문 특징으로 간주할 수도 있겠는데, 이로써 연구의 당위성은 기본적으로 찾아진다. 구체적인 내용에 앞서서 위백규는 농촌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먼저 살피고자 한다.

2. 농촌 현실에 대한 인식

「연보」의 내용에 의하면, 위백규는 일찍이 명민함을 보였지만, 뚜렷한 스승을 찾지 않고 家學으로서 叔祖인 春潭公에게서 육감과 천자문 등을

-
- 1) 그동안 이루어진 위백규의 한문학적 주요 연구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김석희, 「존재 위백규의 생활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2.
_____, 『존재 위백규의 문학연구』, 서울 : 이회문화사, 1995.
윤은혜, 「위백규 시 연구」, 카톨릭대 석사학위논문, 1996.
김준옥, 「존재 위백규의 문학적 기반」, 『고시가연구』 9, 한국고시가문학회, 2002, 228~256쪽.
위홍환, 「존재 위백규의 시문학 연구」, 조선대 박사학위논문, 2005.

익히는가 하면, 스스로 독서하며 경학 뿐 아니라 여러 책을 두루 섭렵해나갔던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스스로 하는 공부에 한계를 느껴 25세가 되던 해에는 드디어 충청도 德山의 屏溪 尹鳳九를 찾아가 束修禮를 행하고 『대학』과 『중용』 등을 수학하면서 스승과 제자의 인연을 맺는다. 당시 윤봉구는 국중에 알려진 성리학자였는데, 위백규가 자신이 살고 있는 장흥과 덕산의 거리가 상당함에도 不遠千里하고 찾아갔던 것은 체계적인 공부를 하기 위함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백규는 경제적인 여건이 좋지 않아 스승 곁에 오래 체류하지 못하고 잠시 머무르다 고향 집으로 돌아가고는 하였다. 이렇게 비록 오랜 체류는 하지 못하였지만, 위백규는 윤봉구를 스승으로 모신 이후 여러 방면에 두루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며 본격 저술 활동을 하게 된다. 그리하여 31세 때에는 「時弊 10條」를 지어 스승에게 바치는가 하면, 32세 때에는 세계지리서라고 할 수 있는 『寰瀛誌』를, 33세 때에는 경전 중에서 감명받은 章節을 엮은 『古琴』과 그리고 시패를 논한 『정현신보』 등을 저술한다.

한편, 22세 때 이미 長川齋에서 학생들을 불러 모아 과정을 정하여 가르치기 시작한 위백규는 윤봉구에게 나아간 후에도 마찬가지로 친척 자제들을 가르치는 일에 매진하는데, 뿐만 아니라 養正塾이라는 학당을 설립하여 이전보다 더 체계적인 향촌 교화를 하기에 이른다. 이렇듯 위백규는 덕산과 고향 傍村을 왔다갔다하며 배우고 가르치는 일을 병행하며 향촌을 교화하는 일까지 수행하지만, 아직은 생활 속 현장에 완전히 나아간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즉, 자신이 사족의 위치에 있었기에 향촌 사람들을 이끌며 조금은 군림하는 자세를 취했다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41세 때 스승 윤봉구가 세상을 뜨고, 덕산수학기가 끝나면서부터는 향촌에 머무르며 생활 속 현장에 뛰어들기 시작하는데, 躬耕讀書를 본격적으로 하기에 이른다. 다음은 생활 속 현장에 뛰어든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연보 내용이다.

이 해에 社約으로 인하여 드디어 궁경독서의 규약을 정하였다. 비웃과 삼태,

호미를 갖추고 또한 서책을 허리에 찼다. 직접 목화밭의 김을 매고 정오에 큰 나무 아래에서 쉬면서 각자에게 그날 공부할 내용을 가르쳤다. 매달 초하루와 보름이면 都講을 설하고서 각자가 절구와 장를을 짓게 하고, 서기와 간찰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재질에 따라 품평하였다. 향약과 『소학』의 글들을 가려 뽑아서 익히고 해석하였다. 실행한지 수년 만에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²⁾

사약이란 ‘社講會’의 규약을 의미하는데, 이는 30세 미만의 청년을 중심으로 학문을 닦으며 농경에 임하기 위하여 만든 모임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삼태와 호미를 가지고 직접 농사를 짓다가 쉬는 틈을 이용하여 공부를 가르치는 등 전형적인 궁경독서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절구와 장구를 짓게 하는가 하면, 서기와 간찰 등을 통하여 재질을 품평하는 등의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공부 수준을 점검하니 수년 후에는 그 효과가 나타나 궁경독서의 의미가 나타났다고 적었다. 그러는 가운데 당시 위백규의 향촌 내에서의 이러한 활동을 嫉視하는 눈초리도 있었으나 ‘오허려 그만두지 않았다’³⁾라고 하여 소신 있는 자세를 견지하기도 하였다. 위백규가 생존한 18세기는 그 이전의 향촌에서 사족이 누렸던 경제적 부를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경우가 많았다. 위백규도 예외는 아니어서 자신의 처지가 심각할 정도로 가난함을 여러 글에서 나타내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자신이 사족이라는 신분을 버리고 남의 질시까지 받아가며 궁경을 하게 된 것은 순전히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한 방안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리하여 위백규는 농촌에서 현실적으로 농민과 직접 부대끼며 비참한 현장을 조금씩 발견하게 된다.

다음 두 글은 모두 ‘漕運의 폐단’을 논한 것 중의 일부분이다. ①은 33세 때에 지은 『정현신보』에 실린 내용이고, ②는 50세경에 지은 것으로

2) 『存齋全書』 年譜 42歲, 是歲因社約 遂爲躬耕讀書之規 具囊笠荷鋤 兼帶書冊 自耘綿田 而亭午休大樹下 各授課讀 每朔望設都講 各制絕句長律 以至序記簡札 隨其材而第之 釋讀 鄉約小學章抄 行之數年 著有成效.

3) 『存齋全書』 年譜 42歲, 雖猜忤者 百方嚇沮 猶不永廢.

당시 장흥군수로 와 있던 黃幹의 『봉사』를 대신 써준 글이다. 이 두 글을 비교해 보면, 농민들이 비슷하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나타내 보여준 정도가 다름을 알 수 있다.

① 이를 보는 병든 백성과 쇠잔한 농민은 밭을 구르며 바라다보고 머리를 굽적이면서 탄식하지만 감독관은 단지 구경만 하고 있을 뿐 백성의 고통은 아예 생각하지 않습니다.⁴⁾

② 이미 倉所에 도달한즉 監官을 어린애로 여기고 농민을 버려지로 봐 버린 뒤 斛과 저울대를 마음대로 동독하여 호통을 쳐대며 濫捧게 하니 尸童 監色이 감히 누구냐고 대들지 못하고 애잔한 지 농민들은 밭을 구르며 소리를 삼키고 맙니다. 고혈을 다 짜내고 傾瓶倒軸의 지경인데 破船한 쌀이라 하여 다시 舂米네, 縮米네, 加米네 하여 旋復하기를 여름 유월 보릿고개 한없이 참혹한 때를 당하여 벼락치고 불난 듯이 재촉해대니 大民은 그 家庄을 전매하고 小民은 그 族隣을 분탕질하여 사방의 들판에 ‘農歌’가 문득 끊어져 버리고 열 집의 마을에 버려진 아이들이 다투어 울어 맙니다.⁵⁾

①과 ② 모두 지방에서 해운을 통하여 곡식을 운반한 후 서울에서 저울에 매달아 뜨는 광경을 나타낸 것으로 운반 도중 중간 관리자들이 부정을 저질러 정량이 되지 못한 상황을 알 수 있다. 중간 운반자들은 이미 감독관에게 뇌물을 준 상태이기 때문에 감독관들 또한 농민을 버려지 취급한다고도 하였다. 그러나 농민은 저항하지도 못하고 그저 당하고만 있을 뿐이라 하여 힘없는 계층의 서러움을 대변해주고 있다. ‘농가’는 농민들이 농사지를 때 흥겹게 부르는 노래일진대 더 이상 불러지지 않고 끊어졌다고 함은 흥의 대상과 명분 등이 사라졌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농촌의 현실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게 한다.

4) 『政絃新譜』 漕運之弊, 其槩病氓殘農 頓足旁觀搔首吞聲 其監色愬爾無愾.

5) 『封事』 漕運之弊, 既到倉所 則兒視監官 蟲視農民 自董斛槩喝令濫捧 尸童監色 莫敢誰何 殘彼農民 頓足吞聲 輸膏納血 傾瓶倒軸 而破船米 更舂米縮米加米 旋復星催火迫於夏六月 麥窘孔慘之際 大民典賣其家庄 小民焚蕩其族隣 四郊之農歌頓絕 十室之孤孩競號.

한 가지 더 위 두 글을 비교하여 알 수 있는 점은 ①에 비할 때 ②의 상황 설명이 자세하다는 점이다. 즉, ①은 극히 피상적인 반면 ②는 구체적이어서 바로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처럼 나타났다. 이는 위백규가 같은 상황을 두고서도 정도를 다르게 나타내 보여주었다는 반증인데, 위 두 글을 썼던 자신의 상황과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다. ①의 내용을 썼을 당시는 윤봉구에게 수학하고 있었던 때로 위백규 자신이 농민의 삶과 다소 간격이 있었던 때라고 할 수 있다. 반면, ②의 내용을 썼을 당시는 농촌의 현실에 이미 뛰어들어 농민과 함께 부대끼며 그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目睹했던 때이다. 이렇게 본다면, 결국 농촌의 현실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었던 때는 궁경독서기에 접어들어서야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두 글 모두 상소문인지라 상투적이고 관념성에 그칠 소지가 다분하다. 따라서 현실을 입체적으로 보여줄 보다 더 나은 글의 양식이 필요했을 것인데, 시문을 통한 ‘현실 보여주기’는 이리하여 가능하였다.

3. 시적 형상화의 양상

1) 궁핍한 삶의 觀照的 표현

위백규는 가난한 향촌 사족으로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晝耕夜讀해야만 하는 위치에 있었으며, 그러는 가운데 빈궁한 농촌의 삶의 양태를 볼 수 있게 된다. 다음은 이와 관련된 첫 번째 작품이다.

二月田家倒瓶甕	이월의 농촌은 쌀독을 기울이고
不堪時事苦營營	세시의 일 감당 못하니 괴로움만 빈번하다
花開古峽鳥鳴磻	꽃이 핀 옛 골짜기와 새 지저귀는 시냇가에는
惟有春風非世情 ⁶⁾	오직 봄바람만이 있어 세상의 정과 어긋나네

위 시는 작자가 수학의 장소로 삼았던 天冠山의 장천재로 들어가면서 지은 것으로 시기적으로는 2월에 해당한다. 2월의 농기는 지난해의 곡식이 거의 바닥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한 해 중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빈궁하기 이를 데가 없다. 그러한 사실은 바로 기구의 ‘쌀독을 기울인다’라는 표현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전해주고 있다. 또한 가난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일조차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드니 그 괴로움이야 비할 데가 없는 것이다. 승구까지는 이러한 가난하여 어려움에 처한 농촌의 현실을 전해주고 있지만, 전구와 결구에서는 인간의 삶과는 다른 자연을 등장시켜 극명한 대조를 하였다. 지금 작자가 들어가는 장천재는 산 속에 있기에 주변에는 흐르는 물과 새, 꽃 등의 자연물들이 산재해 있고, 또한 때는 2월 인지라 봄바람도 불어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여유로운 자연의 모습은 세속에 묻혀 사는 인간에게서는 볼 수 없음을 들어 고난의 연속에 쌓인 농촌의 삶을 부각시켰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작자가 어떤 태도로 농촌의 삶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작자는 농촌의 삶이 어떻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듯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한 입장에 놓여있다. 즉, 그저 멀리서 관조하면서 사실을 전해줄 뿐이지 어려움을 겪게 된 어떤 원인 제시도 없기 때문이다.

다음의 시는 가난의 원인으로 자연재해를 들고는 있지만, 농촌을 바라보는 관점은 앞 시와 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稱爲梅霖古或然	매립이라 일컫는 때는 옛적에도 혹 그러했는데
翻盆浹旬祗今年	만 열흘 동이를 뒤집듯이 한 것은 다만 금년뿐이네
農民愁死其如歲	농민들이 시름에 죽을 지경이니 올해를 어찌 할 것인가
大陸橫侵莫問天	대륙이 마구 잠기니 하늘에 물을 수도 없네
賢聖有言吾自慰	성현의 말씀이 있어 내 스스로를 위로해보나
饑炊無計婦堪憐	밥 지을 계책 없으니 부인네가 가련하네

6) 『存齋全書』 卷1, <二月入長川洞>.

化翁戲劇應靡已 조화옹의 장난은 아마도 그침이 없으니
且喚家僮看防川⁷⁾ 우선 아이를 불러 방천을 보게 하네

수련에서 말한 梅霖은 보통 매실이 익을 무렵에 오는 긴 장마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언제나 겪는 자연 현상이기에 체념한 듯한 어조로 시문을 열었다. 그러나 다른 해와 유달리 장마가 길게 이어지면서 삶에 안겨주는 것은 곤궁함뿐임을 ‘열흘 동안 동이를 뒤집듯이 한다’라는 표현을 통하여 제시하였다. 그러니 이러한 농촌에서 사는 농민이 걱정될 수밖에 없다. 작자의 愛民意識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그 이유를 하늘에 물을 수도 없다라고 하여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드러낸다. 여기까지가 함련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경련에서는 ‘나’와 ‘부인’을 서로 대조시켜 ‘나는 성현이 남긴 책을 읽으며 위로의 자료로 삼을 수 있으나 반대로 ‘부인’은 밥 지을 것조차 없으니 가련하기 이를 데 없다라고 하여 현실의 불행을 보고서도 어찌지 못하는 나약한 儒者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런 나약함은 다음의 미련까지 이어지는데, 장맛비는 결국 조화옹의 소관이라고 돌리며 단지 작품 속 화자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이를 시켜 방천을 보게 하는 것일 뿐이다. 결국 농촌에 닥친 불행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자연 재해로 인한 것이기에 어찌할 수 없어서 작자는 나약한 자세로 세계를 관조만하고 있다.

다음 시도 위의 시와 거의 흡사한 작품으로 농촌 삶의 어려움의 시작이 또한 자연 재해로부터임을 제시하였다.

借陽纔去又陰霏	어그러진 양기 겨우 가고 또 음한 비가 오니
事事田家大半非	농촌 일일마다 절반 이상 그릇 되네
少暑過時秧已晚	적은 더위 지날 때는 모심는 일 이미 늦고
沴氛蒸處莠全肥	나쁜 기운 찌는 곳에 가라지 완전 살찌네
單婢愁爨無薪木	한 여자중 딸나무 없는 아궁이 불 때기 근심스럽고
稚子輕沾未澣衣	어린 아이 빨지 아니한 옷 적시기 손쉽네

7) 『存齋全書』 卷1, <疊韻送河義瑞單道別懷>.

幽人計活都安分 그윽한 곳의 사람 모두 편안히 살 계획만 세우니
收拾園梅且詠歸⁸⁾ 정원의 매화 거두어 모아 또 읊조리며 돌아가네

농사를 주업으로 하여 먹고 사는 농민에게 있어서 자연 재해는 어느 무엇보다도 무서운 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수리 시설이 그리 발달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계속된 비는 당연히 많은 일을 그르치게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장마가 끝나고 더위가 닥칠 때 모를 심자니 때는 이미 늦어 이리저도 저리저도 못하는 심정을 함련에서 내비치었다. 그리고 경련에서는 ‘單婢’와 ‘稚子’를 대조시키며, 전자는 뭍나무가 없기에 아궁이에 불을 뭍 수가 없고, 후자는 옷을 굳이 빨지 않아도 비에 적시기 쉽다라고 하였다. ‘단비’와 ‘치자’를 대조한 것 같지만, 사실은 빈궁함의 극치를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둘 다 공통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단비’는 하나밖에 없는 여자 종이라는 뜻으로 작자는 현재 겨우 班家の 체면을 유지해 나갈 정도의 家勢임을 드러내주는 관용어라고 할 수 있다.⁹⁾ 사족에게 있어서 토지 외에 물질 기반의 중요한 하나는 奴婢였다. 노비는 사족 경제에는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부분을 점하는 것으로 士民들에게 있어서 생업의 기초가 되고 있었다.¹⁰⁾ 작자도 향촌 사족이 분명한데, 한 명의 여종만을 거느리고 있으니 스스로가 가난한 삶을 살고 있음이 증명된 셈이다. 그렇지만 그 뿐일 뿐 더 이상의 비관이나 비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그러면서도 ‘安分’을 꿈꾸며 정원의 매화를 시문으로 읊조릴 뿐임을 마지막 미련을 통하여 나타내었다. 비판 정신이 부재한 상태에서 가난한 삶을 관조하고 있기에 현실이 마치 만족스럽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소지가 다분하다.

이상 현실을 빈궁한 삶으로 인식하기는 했지만, 현실을 주로 관조는 데에서 그친 시문들을 살폈다. 이러한 류의 현실시는 주로 관직에 있는 유학자들의 작품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현실의 문제점이 무엇이라는 것까지

8) 『存齋全書』 卷1, <晚霖>.

9) 김석희, 전계서, 39쪽 참조.

10) 김인걸, 전계 논문, 325쪽 참조.

는 인식하지만, 대개 더 이상의 진전은 하지 못한다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는 마치 현실과 지나친 거리 조정을 한 결과이기도 한데, 그러면서 감정의 억제까지 했으니 관념적인 시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현실감있는 감동을 안겨줄 수는 없다.¹¹⁾ 오히려 현실인식이 수반이 된 감동을 주는 시적 형상화는 다른 작품들에서 엿볼 수 있다.

2) 빈궁한 현실의 迂迴的 表출

위백규는 보리를 소재로 한 시문으로 모두 네 작품을 남겼는데, <罪麥>, <麥對>, <靑麥行>, <靑麥> 등이 그것들이다. 네 작품의 내용을 간단히 언급하자면, <죄맥>은 5언 84구로 보리를 被告로 놓고서 그 죄를 논한 것이고, <맥대>는 5언 146구의 장편으로 <죄맥>을 이어서 보리 자신이 斷罪 당함에 대하여 주로 변명을 늘어놓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청맥행>은 부정형 古詩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제목의 '청맥'이 말해주듯 풋보리로 춘궁의 때를 면하는 농촌의 모습을 그렸다. 그리고 마지막 '청맥'은 칠언율시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며, <贈河上舍>의 시제 중 첫 번째 작품으로 마치 앞의 <청맥행>의 내용을 다소 축소한 듯한 느낌도 주는데, 마찬가지로 춘궁기 농촌에서 보리를 타작하는 과정에서부터 죽을 썬어 먹는 일 등을 묘사하였다. 따라서 그 내용의 성격상 <죄맥>과 <맥대>, 그리고 <청맥행>과 '청맥' 등을 각각 같은 맥락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특히 주목되는 점은 '청맥'을 제외한 <죄맥>과 <맥대>, <청맥행> 등의 수사적인 방법이다. <죄맥>과 <맥대>는 시문의 서술 양상이 직접적이라기보다는 보리를 의인화시켜 寓話의으로 표현하였고, <청맥행>은 극적 요소를 가미하여 현실의 궁핍함을 간접적으로 표현하였다. 먼저 <청맥행>의 일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11) 金峻五, 『詩論』(서울: 三知院, 1993), 252~254쪽 참조.

(省略)

門外乞兒來	문밖에 거렁뱅이 아이 왔으되
先來僅得沾一勺	먼저 온 놈만 가까스로 한 모금 얻어 마셨네
後至頓足	뒤에 온 놈 발만 동동 구르며
疾聲請活我	“나를 좀 살려 줘쇼!” 황급히 소리치지만
其奈無餘瀝	한 모금도 남은 것이 없으니 어찌리
臨門語乞兒	문에 나가 거렁뱅이 아이에게 이르기를
何不呼朋挈	“왜 친구를 불러
儔向紫陌朱門乞	나란히 큰 거리 부잣집에 함께 가서 빌질 않느냐?
犬彘厭粱肉	개와 돼지 기장밥과 고기에 물렸다는데
豈無活爾術 ¹²⁾	어찌 너희들을 살릴 방책 없겠나?”

마치 연극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극적이다. 위 시의 앞은 풋보리를 빵아 죽을 쑤어 온 가족이 맛있게 먹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온 가족이 배불리 먹고 安分自足하고 있을 때 문밖에는 거렁뱅이 아이들이 몰려와 풋보리죽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으려 애쓴다는 내용으로 위 시는 시작하였다. 풋보리죽이지만 한 모금이라도 얻어먹으려는 모습이 다소 과장된 듯한 느낌도 주는데, 현실의 궁핍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나마 풋보리죽도 양이 많지 않아 나중에 온 아이는 얻어먹지 못하여 발을 동동 구르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은 다급함의 극적인 효과를 최대로 하면서 현실성을 더해준다. 그러나 풋보리죽은 남은 것이 없기에 거렁뱅이 아이에게 이르기를 “개와 돼지도 기장밥과 고기에 물릴 정도로 잘 먹고 산다는 큰 거리 부잣집에 가서 빌지 않느냐?”고 묻는다. 이를 통해 작중 화자는 겨우 풋보리죽이나 쑤어 먹는 자신의 집과 큰 거리 부잣집을 대비하여 잘 사는 집일수록 人情이 없음을 은연 중 드러내기도 하였다. 즉, 인정의 대비를 통하여 부잣집을 간접적으로 비판할 뿐이지 빈궁한 현실을 이기어 내야 하는 당위성을 부여하지는 않았다. 다시 말해 빈궁한 현실의 원인을 파헤친다거나 가난한 자와 부자를 대비하여 비판의

12) 『存齋全書』卷1, <青麥行>.

식을 보이지 않았다는 말이기도 하다.

우회적 문학 장치를 통한 빈궁한 현실의 표현은 <죄맥>과 <맥대>에서도 이어진다. <죄맥>은 보리의 부정적인 면을 낱알이 들어 보고하는 형식을 취하였고, <맥대>는 보리를 의인화하여 자신은 아무런 죄가 없음을 항변하는 식으로 되어 있다. 보리에게 죄를 묻는 것도 흔히 있는 일이 아니지만, 보리에게 수사적인 기법을 가미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만하다.

먼저 <죄맥>은 크게 나누어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뉜다. 서론(1~4구)에서는 피고의 신분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를 하였고, 본론(5~80구)에서는 보리 자체의 성질이나 생김새에 관한 설명적 묘사부터 시작하여 이러한 보리를 어쩔 수없이 경작하고 수확하여 도정해내는 과정을 그렸으며, 보리밥을 먹고 소화시키는 과정을 말한 뒤에 보리의 무익함과 해악, 무가치함을 단언하였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81~84구)에서는 보리에게 ‘유배형’을 확정한다는 내용으로 되어있다.¹³⁾ 시문의 처음에 ‘곡식이라 불리는 것이 수 백 가지인데, 가장스러운 것은 오직 보리로다. 그릇되게도 못 나쁜 재질로, 궁핍함을 틈타 백성의 식량으로 참여하였네’¹⁴⁾라는 말부터 시작한 <죄맥>은 내용이 끝나는 마지막까지 보리를 논죄하는 식으로 되어 있다. 심지어 ‘있어서 눈에 보이니 비록 꼭 참고 먹긴 먹지만, 새거나 떨어져 나간대도 누구 하나 아까워하리. 때가 그러하니 어쩔 수 없어, 너를 버리지 못할 따름. 실로 처음부터 없었더라면, 백성들 생계는 응당 스스로 대비함이 있었으리라’¹⁵⁾라고 하여 먹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먹고 있노라고 하며 보리를 싫어하는 마음을 단적으로 알려주기까지 한다. 통상 보리밥이 가난의 대명사처럼 쓰임을 생각할 때 궁핍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먹고 사노라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이와 같이 <죄맥>에서는 주로 보리의 부정적인 면을 들추어 보이려 애

13) 金碩會, 전계서, 112쪽 참조.

14) 『存齋全書』卷1, <罪麥>, 號穀數爲百 可憎者惟麥 謬以衆惡質 承乏參民食.

15) 『存齋全書』卷1, <罪麥>, 見在縱耐喫 漏落誰能惜 乘時沒奈何 遂未見棄擲 苟使初無有 民計當自屬.

쓰는데, <맥대>에서는 그 반대로 보리 스스로가 자신은 죄를 받을만한 일을 한 적이 없음을 들어 항변한다. 그 한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入口已難耐 입에서도 감내하기 어려웠으나
 下膈尤作惡 밥통을 지나고 나면 더욱 더 사특함을 드러내네
 泄氣助溽蒸 설사 기운이 방구가 되어 악취를 뿜어내니
 敗臭發面渥 썩은 냄새가 발하여 낮에 확 덮쳐우네
 乖刺作痢泄 꼭꼭 찌르며 묽은 설사를 일으켜서
 促迫驅溷廁 급히 쫓아 뒷간으로 내 모네
 老人痿成痺 노인은 풍증에서 마비로 진행되어 가고
 建兒瘦脫髓¹⁶⁾ 튼튼하던 아이도 수척해져서 뼈만이 앙상하네
- ② 人皆腹不潔 사람은 모두다 배가 조출하지 못해서
 蓄穢成疢痒 더러움을 쌓아두니 열병이 되고 중기가 되는 것뿐이라네
 我豈小人如 내가 어찌 소인과 같이
 厭然掩肺臟 염연히 폐장을 가리울 리 있겠는가
 老痿與健瘦 노인이 풍이 들고 젊은이가 마르는 것은
 都由暑溽狀 모두 찌는 더위에 상한 탓이라네
 苟非泄內濕 실로 설사로 내장이 젖은 탓 아니니
 多見病膏肓¹⁷⁾ 대개의 경우 병은 이미 고향에 든 것이라네

①은 보리밥을 먹고 난 뒤에 소화가 되어가는 과정을 그렸다. 먼저 보리밥을 먹게 되면, 쌀밥과 같은 부드러움이 없기에 씹기에도 불편함을 말한 뒤 삼켜서 내장을 지나면서는 더욱더 문제를 일으켜 생리 현상까지 유발한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설사를 일으키니 결국 노인들은 마비를 일으키고, 어린 아이들은 수척해져서 뼈만 앙상히 남는다고 하였다. 보리밥의 부정적인 면을 사실적으로 알리기 위하여 한시문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생리적인 천근함까지 거침없이 내보였다. 이에 반하여 ②에서

16) 『存齋全書』卷1, <罪麥>.

17) 『存齋全書』卷1, <麥對>.

는 병이 생기는 원인은 배가 조출하지 못해서일 뿐이지 보리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한다. 또한 노인이 풍이 들고 아이들이 마르는 이유는 찌는 듯한 더위와 오래 전부터 있어온 병 때문이지 일시적인 생리 현상으로 인한 것이 아님을 든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보리인지라 자신에게 모든 죄를 묻는 것이 서운하기만 하여 ‘진선하기란 예로부터 어려운 법, 작은 흠집을 들춰내서는 안된다네. (중략) 생각하건대 그대는 젊어서부터, 나를 기뻐하며 심장을 허했거니. 이제 어찌하여 끊어버림을 이리 깊이 하여, 털을 불며 흠집을 찾는단 말인가’¹⁸⁾라는 말을 하여 감정을 직접 드러낸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과 같은 논리로써 항변을 끝맺음한다.

豈不見古今	어찌 고금의 일을 보지 못하는가
奇禍生膏梁	뜻밖의 화는 고량진미에서 생겼다는 것을
殮玉非不美	풍성한 식사가 아름답지 않은 것은 아니로되
馴侈立成殃	사치가 길들여지면 재앙을 이루고야 만다네
往轍有昭鑑	지나간 흔적 비추는 거울에 남았나니
豪門滿敗光	호사가의 문호는 부서진 수레만 그득하다네
窮餓資動忍	빈궁하여 주려 참는 법 쓰기를 배워
孟訓宜拜昌	맹자의 훈계 마땅히 절하여 받는다면
始信非食味	비로소 거친 음식의 맛 알 것이요
方垂盛名香	바야흐로 성한 이름 향기롭게 드리우리라
(中略)	
君無恥惡食	그대가 거친 밥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만
爲善彌自獲	선을 함에 더욱 힘쓸 수 있으리라
旣爲學聖徒	이미 성현을 배우는 무리가 되었으니
自處胡不量 ¹⁹⁾	스스로의 처지를 어찌 헤아리지 않는가

보리는 먼저 고금의 재난은 고량진미에서 생겼고, 사치에 길들여지면 결

18) 『存齋全書』 卷1, <麥對>, 盡善自古難 小疵莫須揚 (中略) 念君自妙齡 悅我許心腸 今何見 絕深 吹毛覓疤痕.

19) 『存齋全書』 卷1, <麥對>.

국 재앙을 만나고야 말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거의 많은 호사가들의 집에는 마지막에는 부수어진 수레만이 남기에 빈궁하여 굶주림의 미덕을 배울 것을 요청한다. 이럴 때에만 거친 음식이 비로소 맛있음을 알 것이고, 성현 이름은 향기를 더하여 전하리라고 한다. 따라서 거친 밥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야지 진정 선에 힘쓸 수 있다라고 하며, 성현의 무리에 든 사람이 왜 자신의 처지를 망각하는가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죄를 준 것은 마땅히 잘못이라는 항변을 하였다. 이러한 보리의 항변이 끝난 후 “보리여! 진실로 너는 허물이 없나니, 내 말이 과연 부끄러운 바가 있구나. 도를 봄이 이미 참되지 못해서, 물을 책망하기에 감히 스스로 장황했도다”라는 말이 이어진다. 이는 마치 <죄맥>에서 보리에게 죄를 준 화자가 곁에서 보리가 하는 항변을 오랜 시간 듣고 다시 나타나 응수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으로 시문의 입체감을 한층 높였다.

여기서 주목을 요하는 것은 보리에 대한 작자의 생각이다. <죄맥>에 열거된 보리의 부정적인 면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편적인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맥대>를 통해 나온 보리 자신에 대한 항변은 작자의 생각을 고스란히 담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평소 빈궁한 작자는 보리밥을 즐겨 먹었을 것이고, 그것의 좋지 않은 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유학자의 입장에서 그것을 직접 비판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맥대>에 나오는 보리의 마지막 항변인 ‘이미 성현을 배우는 무리가 되었으니, 스스로의 처지를 어찌 헤아리지 않는가’라는 시문의 내용은 작자의 가난에 대한 생각을 전해준다. 즉, 작자는 성현의 무리를 좇는 사람으로서 가난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 安貧樂道해야함을 드러내었다. 때문에 뚝배기에 채소를 넣고 찌개를 끓여 배불리 먹으니 달기가 사탕 같았고,²⁰⁾ 풋보리죽을 배불리 먹고 방에 가득 웃음꽃을 피울 수 있었던 것이다.²¹⁾

이상과 같이 위백규는 빈궁한 현실을 인식하고는 있었지만, 비판의식을

20) 『存齋全書』卷1, <麥對>, 宿火燃土鏗 新蔬潑窓湯 平明開竹牖 飽喫甘如糖.

21) 『存齋全書』卷1, <青麥行>, 稚子求飽喫 一室始吐氣 喧笑溢房屋.

가지고 현실을 직접 들추어내기보다는 문학적 장치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을 택하였음을 보았다. 이는 그의 신분적 상황과 밀접히 연관되는 것으로 자신도 가난했기에 이의 실태를 알고는 싶었지만, 사족으로서 그리고 유학자로서의 위치를 망각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실을 관조하고 마는 것보다는 현실에 다가선 듯하지만, 사실은 아직도 현실과의 거리는 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3) 농경 현장의 寫實的 묘사

위백규는 40대 초반부터 50대 초반까지 직접 농사를 지으며, 농촌 현실을 직접 목도하게 된다. 이때 위백규가 본 농촌은 비참하기 이를 데 없었다. 이제 위백규는 농사를 지으며 농민과 함께 부대끼는 나날을 보내면서 그동안 보지 못하였던 현실의 처참한 광경을 볼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직접 체험한 것을 시문으로 남긴다. 그 대표적인 작품이 <年年行 1>과 <年年行 2>이다. <년년행 1>은 7언 10구이고, <년년행 2>는 고시 잡체형식으로 대략 55구 정도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년년행 1>의 처음 대목을 인용해본다.

晚秧豐歉較一午	늦은 모 풍흉은 한나절을 견주나니
覓雇呼傭相喧闐	품을 구해 일꾼 부르는 소리 시끄럽게 다투네
誰謂早餘仍作霖	누 일렀던가, 기뭄 끝에 곧 장마라고
蓑笠價倍腐穢穢	삿갓 값이 두 배인데, 비옷마저 썩어가네
傭直三十加點心	일꾼 샅이 삼십에 점심까지 없으니
浮氓鼓腹農含螿	떠돌이들 배 두드리나 농부는 독을 품네
居士社堂舍念佛	거사나 사당패들 염불은 제쳐두고
雇錢滿糶兼魚肉	웨미 가득 샅돈에 생선고기 곱했네
況是兩麥未全收	하물며 밀 보리도 다 거두지 못했으니
入者蒸黃田者黑 ²²⁾	들인 것은 누렇게 텃고 밭에 있는 것 검어지네

22) 『存齋全書』卷1, <年年行 一>.

시문의 처음부터 여유로움은 찾을 수 없다. 모내기를 해야 할 시기에 하필이면 가뭄이 들어 때를 놓쳐 모심기를 하지 못하였다. 겨우 늦게나마 일을 하려는데, 이번에는 장마가 들어 자칫하면 일을 그르칠 수도 있기에 품을 빨리 구해 일을 마치고자 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또한 장마가 들었기에 샷샷 값은 두 배인데다가 비옷은 찢어가고, 일꾼들의 품삯이 터무니 없이 비싼 것도 나와 있다. 일꾼들의 품삯이 비싸다고 함은 바로 노동력의 부족을 의미하는데, 따라서 이때를 틈타 거사나 사당패와 같은 ‘떠돌이들(浮氓)’이 한몫 챙겨가는 풍경도 보여주었다. 거사에 대하여 『정조실록』에서는 ‘거사는 승도 아니고 속인도 아니며, 호적도 없을 뿐 아니라 부역도 하지 않는 流民 중에서 가장 이상한 자이다.’²³⁾라고 하였다. 거사는 社長·社堂·乞士 등으로 불려 대개 行商·運命鑑定·演戲·行乞로 생계를 유지하였다. 또한 조선후기에 오면 ‘流浪藝人集團’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거사패, 혹은 사당패로써 흥행처를 떠돌며 연회를 팔았다.²⁴⁾ 이렇듯 거사와 같은 떠돌이들이 하는 일이란 정처없이 여러 곳을 다니며 자신의 기예를 파는 것이었다. 그런데, 농번기에 농촌의 일손이 부족하니 어쩔 수 없이 이들 떠돌이들의 일손을 빌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리 좋은 감정을 가질 리는 없는데, 위 시의 ‘떠돌이들 배 두드릴 때 농부들은 독을 품고 있다’는 표현은 이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더군다나 떠돌이들에게까지 비싼 품삯을 주어가며 일을 부렸는데도 불구하고 밀과 보리조차도 완전히 수확하지 못하였으니 이미 거두어들이는 것은 누렇게 떠 있고, 아직 수확하지 못하여 밭에 남아있는 것은 검게 변하였다고 하여 일손이 모자라는 농번기의 농촌 모습을 다급한 어투로 전해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치에 맞지 않는 품삯으로 인한 고통이 심했음도 알 수 있는데, 같은 시 뒷부분의 ‘품꾼들 샷은 나날이 늘어나다’²⁵⁾라는 말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

23) 『正祖實錄』 正祖 10年 2月 丙申條, 我國所謂居士云者 非僧非俗 名漏編籍 身無役布 卽 流民之最殊常者.

24) 진재교, 「이조 후기 유민에 관한 시적 형상」, 『이조 후기 한시의 사회사』(서울 : 소명출판, 2001), 136쪽 참조.

고 하겠다.

농번기의 농촌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중간 관리자들과 착취는 더더욱 심해만 가고, 더하여 전염병까지 기승을 부리니 그야말로 농촌의 현실은 처참하기 이를 데 없다. 다음 인용문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牟還檢督正得時	보리 환자 감독관들, 때를 만난 듯
縛人秧田索錢食	못논에 사람 잡아두고 돈내라 밥내라 성화라네
倉監大言國穀重	창고 감독 기세 좋게 나랏 곡식 중하다라고 하며
猛打里胥髻皆圻	마을 일꾼 때려잡아 불기짜이 다 터지네
痘神乘時殺人兒	마마귀신 때를 틈타 어린애를 죽이니
餉婦畀男半啼哭 ²⁶⁾	밥내는 아낙네, 밭가는 남정네들 절반이 흐느껴 우네

위 시에는 중간 관리자로서 ‘보리 환자 감독관’과 ‘창고 감독’이 나온다. 이들은 모두 농민들에게 반가울 리가 없는 사람들로 현재 농민들의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목표만 달성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 뿐만 아니라 가난한 농촌 사람들에게 ‘돈내라 밥내라’하며 성화를 부리고, 심하게는 불기짜도 때린다. 현실은 이러한데, 이러한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전염병은 창궐하여 어린애들을 죽이니 아낙네와 남정네들은 실의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절반이 흐느껴 울었다’라는 표현은 다소 과장이 섞인 듯하지만, 절박한 현실의 다름 아니다. 본래 환곡은 진휼책의 하나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에 붙는 이자, 즉 耗穀이 국가의 중요 재정수입으로 활용되면서 지방관청의 강제 분급 및 고율의 이자 적용 등으로 농민의 피해가 극심하여 고질적인 폐단으로 정착되었던 것이다.²⁷⁾ 위 시는 이러한 사정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그런데, 이처럼 환곡이 악용되는 현실을 볼 수 있는데도 작자는 의외로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이지 못하다라는 인상을 준다.

25) 『存齋全書』卷1, <年年行 一>, 雇客色價日日增.

26) 『存齋全書』卷1, <年年行 一>.

27) 이형대, <18세기 전반의 농민현실과 <임계탄(壬癸歎)>, 『민족문화사연구』 22집(민족문화사학회, 2003), 47쪽.

가령, 위와 같은 시 뒷부분에서 ‘환자를 구하고 또 나눠준은 옛 규례로 돌아간다 하면서, 약정의 매기는 돈이 가지런히 한 책을 이루네’²⁸⁾라고 한다거나 <년년행 2>에서 ‘환자도 해마다 더더욱 소모분이 불어만 가는데, 잡세마저 해마다 구실과 항목만 더해만 가네. 아전들 입은 해마다 넓어지고, 아전들 눈초리는 해마다 표독해 가네.’²⁹⁾라고 하여 중간 관리자의 인상을 주관적으로 그리는 데에서 멈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蟲災나 자연재해에 대한 내용은 그 양적인 측면에서 단연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의 인용은 총재와 관련된 내용이다.

豈謂滅高之毒蝗	어찌 멸구 벌레의 독함을 이룰 수 있으리
生似糠糜復作惡	겨 같이 생겨나서 자꾸만 사특함을 짓네
一旬之內滿四郊	열흘 안에 온 들뜰에 가득 차서
嫩青叢綠漸看赤	여릿하던 이삭순과 초록빛 줄기, 점점 붉어지네
此蟲爲災甚水旱	이 벌레가 재앙됨은 장마와 가뭄보다 더 심하여
壬癸乙丙人相食	임·계년, 을·병년엔 사람이 사람을 먹었네
旱歲晚稼恒敗斯	가문 해 늦모는 항상 이 때문에 꺾어나니
陌上相弔心膽落	밭두둑에서 서로 위로해 보나 심담이 떨어지는 듯
人人廢耘事捕捉	감매기 제쳐둔 사람들 멸구잡이 일삼으니
手持敗瓢擊水白	손에는 깨진 바가지 쥐고 물을 하얗게 쳐 대네
三三五五作團驅	삼삼오오 무리 이루어 모니
蝮沫跳漚雜黃黑	죽은 껍질 튀기는 거품, 황흑빛이 섞였네
披叢逐水勢自急	벼포기 부여잡고 물을 쳐대는 기세 스스로 급하니
手脚俱忙不敢息	손과 다리 모두 바빠 쉴 엄두를 못내네
面目浮腫背焦爛	눈과 얼굴엔 중기 부풀고 등짝은 타들어 가니
白汗赤淚相交滴 ³⁰⁾	비지땀 붉은 눈물 섞없이 적시네

<년년행 1> 시가 지어지기 몇 해 전인 영조 8년에 ‘전라도 만경·김제

28) 『存齋全書』 卷1, <年年行 一>, 牟還分給還古規 約正喝錢修成冊.

29) 『存齋全書』 卷1, <年年行 二>, 還上年年益敗耗 雜稅年年增色目 吏口年年益大張 吏目年年益射赤.

30) 『存齋全書』 卷1, <年年行 一>.

· 구례 고을에 蝗災가 들다³¹⁾라고 하는 기록이 있음을 보면, 위 시의 충재에 대한 언급은 거의 맞아 떨어진다. 실록에는 전라도 몇 지역만 나와 있지만, 멸구는 원래 번식력이 강한 해충이기에 아마도 작자가 살고 있는 장흥도 예외는 아니었으리라고 생각된다.

위 시는 처음 농사에 해를 주는 것 중에서 멸구벌레가 가장 독하다고 하며, 그 모양을 ‘겨 같다’라고 하였다. 벼멸구의 모습이 마치 쌀겨와 같은데, 이를 두고서 한 말이라고 하겠다. 또한 이 해충은 번식력이 어찌나 빠르든지 열흘 안에 온 들판에 가득 차서 이삭순과 줄기 등을 점점 붉어지게 만든다고 하였다. 바로 벼를 고사시키는 과정을 말한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인데, 따라서 그 해는 장마와 가뭄보다도 더 심하다고 하였다. 심지어 벼멸구로 인한 흉년으로 먹을 것이 없게 되자 ‘사람이 사람을 먹었다’라고 하여 처참한 현실을 극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실제로 『조선왕조실록』 영조 8년에 ‘전라도 강진현에서 굶주린 백성이 사람의 시체를 구워서 먹은 변고가 있었다. 감사 柳儼이 아뢰어 그 현감 任轍을 파직시켰다.’³²⁾라는 기록이 엿보인다. 영조 8년은 곧 임자년에 해당하니, 따라서 임·계년에 ‘사람이 사람을 먹었다’라는 언급은 거짓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사람이 극단에 처하게 되면, 무슨 일이든지 하게 됨을 말함으로서 당시 농촌 현실이 어떠했음을 알려주고 있다. 따라서 멸구벌레를 없애는 일이 절박하니 다음 내용은 이를 말하고 있다. 김매기를 제쳐주고 멸구잡이에만 몰입하는 현실을 볼 때 火急함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 손에는 깨진 바가지를 들고 멸구를 잡기 위해 물을 하얗게 쳐 대고, 삼삼오오 무리지어 물이에 나서는 모습 등의 형용은 실제로 그 일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표현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즉, 세세한 부분까지 寫實性을 놓치지 않으려는 작자의 역량이 돋보이는 부분이라고 하겠다. 결국 마지막에 ‘눈과 얼굴엔 종기 부풀고 등짝은 타들어 가니, 비지땀 붉은 눈물 씬없이 적시네’라고 하여 辛苦한 현실을 거듭 알려주고 있다.

31) 『조선왕조실록』 영조 8년 5월 26일.

32) 『조선왕조실록』 영조 8년 12월 10일.

다음 <년년행 2>에서는 멸구와 같은 충재를 포함하여 가뭄, 장마, 바람, 역병 등을 五災로 지칭하고, 이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年年旱	해마다 가뭄
晝晝夜夜瘵肌肉圻	밤낮 붓도랑에 두레박질, 살이 터지고
年年雨	해마다 장맛비
畝草補堤腐穢襪	김매고 독 수리, 비옷이 찢어가네
年年蝗	해마다 멸구
擊水捕捉吞聲哭	물을 치며 잡아내기, 우는 소리 머금었고
年年風	해마다 바람
百穀偏敗無全穫	백곡이 쓰러져 썩어 온전한 수확 한번 못해보네
年年疫	해마다 역병
四時畏避如崩角	사철 두려워 피하기, 머리 둘 바를 알지 못하듯
一年一災尙云沓	한 해 한 재앙은 오히려 가하다 해도
五災兼備民安適	다섯 재앙 갖추어 오니 백성은 어딜 가야 하나
間年一災猶難活	한 해 걸러 한 재앙도 오히려 살아남기 어렵거든
年年五災胡此毒	해마다 다섯 재앙 어찌 이리 독할꼬
一年三百六十日	일 년 삼백 예순 날
晝晝夜夜嘔舌又頓足	밤낮으로 혀를 차며 발만 동동 구르네
糲飯菜羹兩時僅不絕	찌겡밥 나물 반찬 두 끼니도 겨우 이으니
五十六十髮盡白 ³³⁾	오십 육십에 머리 터럭 몽땅 희어지네

농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자연재해에 대한 염려는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조선전기까지의 直播法이 후기로 가면서 移秧法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로서 농사가 자연에 의존해야 하는 부분은 더 늘어났다고 하겠다. 다시 말하여 이양법은 노동력이 절약되고, 所出이 늘어나며, 稻·麥 二毛 作을 행할 수 있다는 이점을 지니고 있었지만, 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失農할 수 있는 비율이 직파법보다 더 많았다.³⁴⁾ 위 시에 나오는 다섯

33) 『存齋全書』卷1, <年年行 二>.

34) 金容燮, 『朝鮮後期農業史研究 I』(서울 : 지식산업사, 1995), 72쪽 참조.

재앙들 대부분이 자연재해임을 생각할 때 농사를 짓는데, 자연의 영향을 대단히 크게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재앙들이 해마다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가장 큰 문제이다. 시문 중의 ‘밤낮으로 혀를 차며 발만 동동 구르네’라는 표현은 자연 앞에서 불가항력적인 현실의 안타까움을 단적으로 드러내었다. 자연 앞에 선 인간이기에 나약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위와 같은 시 뒷부분에서 ‘五侯의 肉食은 내 분수 아니오, 奸民의 頑富도 내 복 아니거니... 다만 바라기는 해마다 다섯 재앙 없게 하여, 밭 갈고 우물 파서 살게만 해주면 난 스스로 만족하리’³⁵⁾라고 하였다. 즉, 작자는 어느 누구보다도 인간은 자연 앞에서 나약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다만 바라기는 다섯 재앙을 없게 하는 것이라고 한 것이다. 극히 소박한 소망 표시라고 하겠다. 이러한 소박함은 결국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보다는 하늘만 원망하고 마는 데에서 그쳐 아쉬움을 남긴다.³⁶⁾

이상 처참한 농촌 현실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시문을 <년년행 1>과 <년년행 2>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시문에서 위백규는 농촌이 처참하게 된 첫 번째 원인을 충재나 자연 재해 등으로 보았고, 그 다음 두 번째 원인으로 부조리한 사회 제도 등으로 인한 중간 관리자의 착취라고 보았다. 따라서 당연히 중간 관리자의 착취 부분이 다소 두드러지지 않게 보일 수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이는 농촌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분명히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35) 『存齋全書』 卷1, <年年行 二>, 五侯肉食吾不數 奸民頑富吾不福 但使年年無五灾 耕田鑿井吾自足.

36) 『存齋全書』 卷1, <年年行 二>, 我則知天 天公寧不忤 寧不忤兮彼天公 我不爲惡 胡令至此極. 다른 시문에도 작자가 하늘에 의존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는데, 가령 <病中偶吟>에서 ‘身貧且賤服耕耘 憂憾欺人病又殷 海曲蒼生衆所厭 天何玉汝苦慙慙’이라고 한다거나 <苦旱辛卯>에서 ‘嗚何意也雨何心 嗚則旱兮雨則霖 應是天翁錯解事 兩間物盡太涔涔’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4. 시적 리얼리즘의 실현과 의미

리얼리즘은 보통 ‘사실주의’ 아니면, ‘현실주의’로 번역되어 쓰이고 있다. 전자는 주로 창작방법이 부각된 것이고, 후자는 세계관적 측면을 중요시한 의미로 파악할 수 있다.³⁷⁾ 위백규는 시문을 통하여 현실주의와 함께 사실주의적인 측면도 드러내보였다. 따라서 현실주의나 사실주의 중에서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의 시문 전체를 아우르는 특성으로 논할 수 없기에 포괄적 의미를 가진 리얼리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위백규가 나타낸 시적 리얼리즘의 실현 양태는 크게 소재와 표현방법, 그리고 표현미학 등의 측면에서 논의할 수 있다.

첫째, 시적 소재의 현실성을 들 수 있다. 위백규는 7세에 별을 소재로 시를 읊은 이후 여행을 하면서 감흥이 일어 시를 지었는가 하면, 윤봉구를 스승으로 모신 후로는 그와 서로 酬答도 하고, 知人을 만나서는 또한 마찬가지로 시를 주고받았다. 이렇다고 한다면, 위백규가 선택한 시의 소재는 다른 한시 작자들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그가 선택한 시의 소재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위백규는 하던 공부를 중단할 정도로 가난한 삶을 살았음을 앞에서 이미 언급하였다. 따라서 삶을 잇기 위한 방편으로써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소재를 선택하여 시문을 창작하였다. 그 직접적인 예로 앞의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한 시문 중에 논의하였던 밀기울 개떡을 소재로 한 <가땃>과 보리를 읊은 <죄맥>, <맥대>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가난과 농촌을 나타내는 상징물들로 그동안 한시의 소재로는 흔하게 쓰이지 않았다. 또한 위백규는 가난한 현실을 대변하는 듯한 <茨菰>, <葛根>, <榆根>, <黃精> 등의 구황작물을 시문의 소재 겸 제목으로 써서 현실에 가까운 작품을 창작하였다. 이는 시적 소재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찮은 것’에도 가치 부여를 했다는 점에 주목

37) 김명호, 「실학파의 문학과 근대 리얼리즘」, 『한국한문학회연구』 19집(한국한문학회, 1996), 87쪽 각주1) 참조.

을 요한다.

둘째, 표현방법이 치밀하여 사실성을 획득하고 있다는 점이다. 표현방법에 있어서 사실성을 얻기 위해서는 사물에 대한 예리하면서 투철한 관찰력이 있어야 한다. 위백규가 시문을 통하여 사물의 요소요소를 치밀하게 묘사한 흔적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그중 하나의 예로써 앞 3장 3절에서 이미 나왔던 <년년행 1>중의 ‘김매기 제쳐둔 사람들 멸구잡이 일삼으니, 손에는 깨진 바가지 쥐고 물을 하얗게 쳐 대네. 삼삼오오 무리 이루어 모니, 죽은 껍질 튀기는 거품, 황흑빛이 섞였네. 벼포기 부여잡고 물을 쳐대는 기세 스스로 급하니, 손과 다리 모두 바빠 쉴 엄두를 못내네.’ 등과 같은 부분이다. 벼멸구의 심각성을 알려주는 대목이기도 하지만, 그 해충을 잡는 방법을 치밀하게 그려 사실성을 획득한 작자의 시적 능력이 돋보이는 곳이다.

셋째, 표현미학이 현실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위백규는 현실에 바탕을 두면서 진솔함을 나타내 보여주는 시문을 진정 원하였다. 그러나 이의 실천적 측면이 중요한데, 앞 3장에서 논의했던 현실에 근거한 시문들이 이와 관련 있는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표현미학의 세세한 부분까지 작품의 현실성을 놓치지 않으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다. 가령, 앞 3장 3절에서 인용했던 시문 중에 나오는 ‘浮氓’, ‘社堂’, ‘居士’ 등의 시어에서 당시 농업 생산력의 증대와 상품·화폐경제의 진전으로 형성된 농민층의 계층분화 현상이라든가 농촌사회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³⁸⁾ 또한 생활어를 한시에 쓰면서 음이 비슷한 한자어를 빌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滅高’이다. ‘멸고’는 벼멸구를 말하는데, 한자어에는 없는 말을 고의로 만들어 현실감을 더해주었다. 이 외에도 <년년행1>에서 사용한 어휘인 ‘書員’, ‘書史’, ‘面任’, ‘松任’, ‘約正’, ‘牟還’, ‘甘結’, ‘換色’ 등은 당대 사회의 모습을 잘 알려주는 것들로 현실성을 바탕에 둔 표현미학의 단면을 엿보게 한다.³⁹⁾

38) 진재교, 「이조 후기 현실주의 시문학의 다양한 발전」, 전계서, 241쪽 참조.

39) 진재교, 「실학과와 한시」, 전계서, 303쪽 참조.

이상 위백규가 시적 리얼리즘을 실천한 양태를 세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위백규는 거의 한 평생을 향촌에 머물며, 그곳 사람들과 희노애락을 함께 나누었다. 즉, 관직에 있다가 거기에서 잠시 물러나와 향촌에 머물러 그곳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순간적으로 목격하는 경우와는 사뭇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삶의 진솔함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었고, 또한 사족이라는 신분을 잊지 않고 향촌 사람들의 아픔을 상소문의 형태를 띠어 대변 해주기도 하였다. 마찬가지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둔 시문의 의미도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 특히, 40대 초반의 <죄맥>을 비롯한 <맥대>, <청맥행>등의 보리를 소재로 한 시문과 50대 초반의 <년년행 1>과 <년년행 2> 등을 통하여 향촌민들의 애환을 대변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시문에서 때로 자신이 사족 신분임을 내세우는 것을 의식의 한계로 논의할 수도 있지만, 작품 전체가 리얼리즘을 실현하고 있다는 측면에 대비하면 그리 크게 주목받지 못한다고 하겠다.

5. 맺음말

본 논고는 우선 위백규의 한시문 중에서 현실인식이 바탕이 된 작품을 분석해 보고, 이러한 작품들이 과연 어느 정도 시적 리얼리즘을 실천했는가? 하는 측면을 연구하였다.

벽촌 장흥에서 태어난 위백규는 가난한 삶을 살았다. 따라서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안되는 처지에 있었는데, 그러한 중에 농촌의 현실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된다. 특히, 농촌의 현실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었던 때는 궁경독서기에 접어들어서부터인데, 같은 시폐이지만 그 이전의 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폐를 논한 글은 상투적이고 관념성에 치우칠 소지가 다분한데, 시문을 통한 ‘현실 보여주기’는 이리하여 가능할 수 있었다.

위백규는 궁핍하고 가난한 삶이 연속되지만, 그러한 현실을 관조적으로

표현하는가 하면, 때로는 직설적이지 않고 간접적인 방법을 썼으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실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려고까지 하였다. 이는 같은 상황의 연속이지만, 작자 자신이 현실과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었느냐와 관련되는데, 관조적으로 표현할 때보다는 우회적으로 표출할 때, 그리고 우회적으로 표출할 때보다는 사실적으로 묘사할 때 작자는 현실과 더 가깝게 있었다. 따라서 시적 리얼리즘의 실현 가능성도 이런 맥락과 무관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리얼리즘은 보통 ‘사실주의’ 아니면, ‘현실주의’로 번역되어 쓰이고 있는데, 위백규는 시문을 통하여 현실주의와 함께 사실주의적인 측면도 드러내보였다. 따라서 현실주의나 사실주의 중에서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의 시문 전체를 아우르는 특성으로 논할 수 없기에 포괄적 의미를 가진 리얼리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위백규가 나타난 시적 리얼리즘의 실현 양태는 크게 소재와 표현방법, 그리고 표현미학 등의 측면에서 논의할 수 있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첫째, 시적 소재가 다분히 현실성을 띠고 있다는 점이고, 둘째 표현방법이 치밀하여 사실성을 획득하고 있으며, 셋째 표현미학이 현실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 등이다. 이 세 가지는 위백규 자신이 내세웠던 시의 관점과도 관련되는데, 시의 진정성이란 결국 현실을 사실적으로 표현해내야 함을 실천적으로 보여주었다는 데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참고문헌

『조선왕조실록』 영조조.

『조선왕조실록』 정조조.

『存齋全書』

金容燮, 『朝鮮後期農業史研究 I』, 서울 : 지식산업사, 1995.

金仁杰, 「조선후기 향촌사회 권력구조 변동에 대한 시론」, 『한국사론』 19, 서울대학교사학과, 1988.

- 金峻五, 『詩論』, 서울 : 三知院, 1993.
- 김명호, 「실학과와 문학론과 근대 리얼리즘」, 『한국한문학연구』 19집, 한국한문학회, 1996.
- 김석희, 「존재 위백규의 생활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2.
- _____, 『존재 위백규의 문학연구』, 서울 : 이회문화사, 1995.
- 김준옥, 「존재 위백규의 문학적 기반」, 『고시가연구』 9, 한국고시가문학회, 2002, 228~256쪽.
- 위홍환, 「존재 위백규의 시문학 연구」, 조선대 박사학위논문, 2005.
- 윤은혜, 「위백규 시 연구」, 카톨릭대 석사학위논문, 1996.
- 이형대, 「18세기 전반의 농민현실과 <임계탄(壬癸歎)>」, 『민족문학사연구』 22집, 민족문학사학회, 2003.
- 진재교, 「실학과와 한시」, 『이조 후기 한시의 사회사』, 서울 : 소명출판, 2001.
- _____, 「이조 후기 유민에 관한 시적 형상」, 『이조 후기 한시의 사회사』, 서울 : 소명출판, 2001.
- _____, 「이조 후기 현실주의 시문학의 다양한 발전」, 『이조 후기 한시의 사회사』, 서울 : 소명출판, 2001.

<투고일 : 2006. 6. 30. 심사일 : 2006. 7. 15. 심사완료일 : 2006. 7. 31.>

K C I

〈Abstract〉

Recognition of Reality and Poetic Figuration by Jon
Je(存齋) Wi, Baek Gyu (魏伯珪)

Park, Myoung-hui

This study analyzed the works which were based on a recognition of reality among Chinese poems by Wi, Baek Gyu and examined the aspect to what degree such works practiced a poetic realism.

Wi, Baek Gyu described the reality of needy and poor life in a contemplative manner. At times, he adopted an indirect method, not a straight one. Even he tried to show the feature of reality as it was. Although such difference is a continuity of the same circumstances, it is related to what degree of distance the author kept in respect of the reality. Accordingly, it was thought that the possibility of materializing a poetic realism was not irrelevant to such context. If it is reviewed in terms of such point, the mode of actualizing a poetic realism that Wi, Baek Gyu showed can be summarized in three aspects. First, a poetic subject matter greatly exhibits a nature of actuality. Second, since a method of expression is elaborate, a factual character is obtained. Third, the aesthetics in expression is based on a reality. Such three points are related with the point of view in poetry that Wi, Baek Gyu established. Thus, the significance of a genuine sentiment in poetry lies in the fact that it practically showed that the reality, after all, should be realistically described.

Keywords : JonJe, Wi Baek Gyu, Reality, a poetic realism